

BTS 공연 맞춰 부산도시철도 1시간 연장 운행

오는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교통공사, 특별수송대책 시행 1~4호선에서 총 220회 추가 운행 3호선 가용열차 20대 전부 투입 배차 간격 감축, 자전거 탑승 제한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가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에 맞춰 도시철도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공사는 오는 12~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공연에 대비해 영업 시간 연장 및 열차 증편 등 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연장에는 하루 약 5만 5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 이틀간 부산도시철도 영업 시간은 1시간 연장된다.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3호선 종합운동장역 마치는 수영행이 이틀날 오전 1시 4분, 대저행이 1시 13분까지 운행한다. 1호선 연산역과 2호선 광안역 마차도 노선과 행선지별로 0시 36

분에서 1시 20분 사이까지 늘어난다.

열차는 1~4호선에서 모두 220회 추가 운행된다. 특히 3호선은 가용 열차 20대를 전부 투입하고 필요하면 빈 열차를 더 넣어 수송력을 끌어올린다. 이에 공연이 끝난 뒤 3호선 배차 간격은 기존 8~14분에서 4~6분으로 좁혀진다.

혼잡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 기간 3호선에서는 자전거를 갖고 타는 것이 제한된다. 바깥 운행 시각표는 공사 누리집과 부산도시철도 모바일앱, 각역

사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 자원 인력 210명도 추가 배치된다. 이들은 종합운동장역과 연산역, 광안역 등 주요 역과 환승역에 집중 투입돼 승객 안내와 질서 유지 등을 맡는다. 역사 안에 인파가 갑자기 늘면 경찰과 함께 출입구 외부, 게이트, 승강장 순으로 단계별 진입 통제에 나선다.

종합운동장역에서는 모바일 승차권 신용 카드 간 결제 서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역사에 놓인 단말기

의 QR 코드를 찍어 신용 카드로 요금을 내면 모바일 QR 승차권이 바로 발급되는 방식으로, 공사는 승차권 구매 대기 시간과 역사 혼잡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운동장역과 3호선 열차 내부는 BTS 팬사인 아미(ARMY)가 꾸민 테마공간으로 조성, 관람객은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공연 분위기를 미리 느낄 수 있다. 공사는 공연 첫날인 12일 오후 연산역에 환승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퇴근 시간대 혼잡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 이전에 도시철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BTS 콘서트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는 전 세계 아미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고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국립부경대

KAI와 직무 멘토링 캠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KB인재니움사에서 'KAI와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부울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 주관으로 국립부경대 등 5개 대학이 공동 운영했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80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KAI 기업 소개 및 채용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멘토링, 생산 시설 현장 견학, 기업 분석 골든벨, 경험·역량 발굴 워크숍, 입사 서류 작성 및 모의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공공기관 예식장으로 부담 ↓

울산시는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공공기관을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결혼 지원사업의 '1호 부부'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다. 예복과 머리(헤어)·화장(메이크업), 식장 꾸미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지원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하반기에도 가족 중심의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 갯벌, 유네스코 확대 등재 '청신호'

한국의 갯벌 2단계, IUCN 등재 권고 내달 세계유산위원회서 최종 결정



무안갯벌.

/전남도

전남 갯벌은 우리나라 갯벌 세계유산의 핵심 축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신청에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전남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아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최종 등재 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X)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등재기준(X)은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에 부여되는 기준으로, 전남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확대 등재 신청은 2021년 등재된

보성-순천-신안-고창-서천갯벌에 여수-고흥-무안-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탄도만 갯벌 ▲무안-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6개 구성요소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탄도만 갯벌, 무안-함해만 갯벌, 3개 구성요소가 전남에 위치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도시공사, 데이터 해커톤 문제 출제

'DIVE 2026' 발제사로 참가 협력형 컨소시엄 구조 첫 도입

부산도시공사(이하공사)가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에 문제를 내는 발제사로 나선다.

공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에 발제사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취지로 마련됐다. DIVE(Data Insights and Visualization Event)는 부산시가 2024년 처음 선보인 자체 데이터 해커톤 브랜드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문제를 출제하는 '협력형 컨소시엄' 구조다. 이 방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으며 참가자가 이론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의 과제를 풀어 보도록 설계됐다.

발제사 컨소시엄은 모두 9개로 꾸려졌고, 부산도시공사는 데이터 전문 기업인 선도소프트와 짝을 이뤄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 개발 과제를 낸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대학생과 직장인, 일반인 등으로 제한이 없으며 2~4인인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24일까지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박수현,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출범

(충남도지사 당선인)

민선 9기 도정 철학·방향 담아 8개 분과체제로 도민 중심 정책 마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사진)이 민선 9기 충남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준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은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도정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의 주요 인선을 공개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도민께 약속드린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는 선거가 끝났다고 멈추는 구호가 아니다"라며 "이제 충남도정의 실제 설계로 이어져도 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인수위원회'라는 절차 중심 명칭 대신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 대해 "민선



9기 충남도정의 철학을 담아 도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재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의 인수위원과 50여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해 AI수도충남분과, 건설도시분과 등 총 8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준비위원회는 단순한 인수 절차를 넘어 충남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남도, 수산물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9개 시군·23개 전통시장서 진행 구매금액 30%... 최대 2만원 환급

경남도는 도내 9개 시군 2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14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구매 고객,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비비축 수산물 발송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마련했다. 당초엔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참여 시장은 총 23곳이다. 시장별로는 ▲창원시 연합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마산가교수산시장, 기음정시장, 상남시장, 명서시장, 반송시장, 봉곡시장 ▲진주시 연합개개중앙시장 ▲통영시 서호시장, 복신시장, 중앙시장 ▲김해시 삼방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장유시장 ▲양산시 연합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옥포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공통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

오는 12일 '단오절 민속축제'

포항시는 오는 12일 민인당 옆 잔디구장에서 '2026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30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를 개최한다.

위대한 시민과 하나되어 행복한 미래를 여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날 기념식과 단오절 민속축제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 민간기업장과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대형 전광판으로 관람하는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